

외고, 국제고 원서 접수가 12일(수) 마감되었습니다. 사회통합, 보훈자, 지역균형 전형은 모두 합친 평균 경쟁률이 작년 1.34대 1 보다 소폭 오른 1.51대 1로 마감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고에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해당되는 일반 전형은 서울 국제고가 3.30: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2019학년도			2018학년도		
대원 외고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1.76:1	0.78:1		1.76:1	0.76:1	
	1.56:1			1.56:1		
대일 외고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2.03:1	0.74		1.77:1	1.02:1	
	1.77:1			1.62:1		
한영 외고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2.02:1	0.32:1		1.62:1	0.36:1	
	1.68:1			1.37:1		
명덕 외고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2.16:1	0.72:1		1.51:1	0.7:1	
	1.87:1			1.35:1		
이화 외고	일반(120명)	사회통합(30명)		일반(120명)	사회통합(30명)	
	1.44:1	0.37:1		1.51:1	0.4:1	
	1.23:1			1.29:1		
서울 외고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일반(200명)	사회통합(50명)	
	0.96:1	0.22:1		0.95:1	0.38:1	
	0.81:1			0.83:1		
서울 국제고	일반(105)	지역기회균등 (25)	사회통합(20 명)	일반(105명)	지역기회균등(25 명)	사회통합(20 명)
	3.30:1	1.08:1	1.25:1	2.77:1	0.92:1	1:1
	2.65			2.07		

<강남 자사고 지원 현황>

(2018/12/12, 오후 3시 5분 현재)

학교	성별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세화고	남	336	448	1.33:1	84	6	0.07:1	12	1	0.08:1	8	4	0.50:1
세화여고	여	329	314	0.95:1	84	6	0.07:1	12	1	0.08:1	8	1	0.13:1
중등고	남	327	484	1.48:1	87	18	0.21:1	12	0	0.00:1	8	7	0.88:1
현대고	남	138 (변동가능)	136	0.99:1	84	9	0.11:1	12	2	0.17:1	8	2	0.25:1
	여	198 (변동가능)	260	1.31:1									
휘문고	남	371	394	1.06:1	98	7	0.07:1	14	1	0.07:1	9	8	0.89:1

*현대고등학교의 남녀별 정원은 지원자의 남녀 비율에 따라 정해짐

■ 강남 자사고 일반전형 지원 경쟁률 변화추이

학교	일반전형 지원 경쟁률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세화고	1.33대 1	1.11대 1	1.56대 1
세화여고	0.95대 1	1.12대 1	1.56대 1
중등고	1.48대 1	1.27대 1	2.04대 1
현대고	(남) 0.99대 1	1.75대 1	2.18대 1
	(여) 1.31대 1		
휘문고	1.06대 1	1.46대 1	1.4대 1

■ 강남 자사고 입시의 특징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진 것이 특색. 휘문고는 전년도 대비 0.40%p 정도 낮아졌으며 세화여고 일반전형과 현대고 남학생의 경우는 일반전형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강남 5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이유와 관련해 **자사고 관계자는 강남지역으로의 중학생 유입인구의 감소를 들었다. 대치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중학생 인원수가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학생의 강남지역 유입인구 감소는 대입 수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부모의 경제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점 등 여러 원인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특히 휘문고가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저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학생을 모집하는 시기에 학교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 특징인 점으로 현대고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인원에서 경쟁률이 갈려 여학생의 경우 비

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년 남학생은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들어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40~50%대까지 높아짐에 따라 성적 면에서 남학생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이 작용해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세화고의 경우는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학교 홍보와 입시 실적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경쟁률이 높아졌다.

중등고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점에 대해 입학홍보부장인 안광복 철학교사는 오히려 높아진 경쟁률에 당황스러움을 피력했다. 안 교사는 앞으로도 중등고의 입학 경쟁률이 결코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추첨을 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경쟁률을 유지하면 족하다면서 중등고에 꼭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바랐다. 특히 올해의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던 원인으로는 강남 자사고 중에서는 사교육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으면서도 성과 높은 진학률을 이룰 수 있는 학교라는 평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 높은 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작용했다고 확신했다.

■ 향후 일정

자사고 전형은 경쟁률에 따라 전형방법이 달라지는데 일반전형 지원율이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으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율이 12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이면 추첨을 하지 않고 면접을 실시한다. 공식적인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4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중등고: 경쟁률이 1.48대1으로 지원율이 120%를 초과하지만 150% 이하에 해당돼 1차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전원 2차 면접대상자이다.

세화고: 지원율이 1.33대 1로 모든 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마감은 19일(수) 24시까지 이다. 자기소개서는 20일(목) 00:00 부터 출력가능하다.

세화여고: 온라인 마감 후 원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본 최종 경쟁률은 0.78대1. 올해 일반전형 지원자는 추첨 및 면접 없이 전원 합격이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거나 추첨을 통해 선발된 예비 합격자는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이상이 없고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 적격 여부가 검증된 후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다.

현대고: 남학생 지원자는 경쟁률이 0.99대 1로 추첨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2차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합격 처리된다. 단 2차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는 최종 합격이다.

현대고 : 여학생 지원자는 경쟁률이 1.31대 1로 면접을 실시해 선발할 예정으로 2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면접 일시는 12월 29일(토) 오전 8시 10분~ 오후 4시 30분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오전

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취문고: 일반전형 지원율이 1.06대 1로 지난 14일(금) 추첨으로 홈페이지에 예비 합격자를 발표했다. 발표된 일반전형 예비 합격자는 371명으로 추가모집은 없다. 2019년 3월에 있을 전입과 편입에 다시 지원 가능하다. 예비 합격자는 2차 제출 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기타 구비 서류를 20(목)~21(금) 업무시간 9시~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